

기록적 폭염에 전남 섬 피서객도 줄었다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 67만여명...전년비 8.5% 감소 완도~청산도 무려 20% ↓...전국 섬 관광객 11% 줄어

기록적인 폭염은 섬여행객들의 발길도 묶었다. 올 여름 휴가철 목포와 여수 등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목포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전남지역 뱃길 이용객은 6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3000여명보다 8.5% 줄었다.

목표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남해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49만5000명으로 지난해 54만3000명보다 4만8000여명(8.8%)이 감소했다. 목포권이 32만1000명, 완도권이 17만4000명 이용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7%, 12% 줄어든 수치다. 주요 항로별로는 완도~청산 3만4000명이 이용, 전년보다 무려 20%가 감소했다. 송공~암태 4만4000명(14% ↓), 목포~홍도 5만4000명(9% ↓), 화흥포~소안 4만

4000명(4% ↓)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뱃길 이용객이 가장 많은 목포-제주 항로는 6만6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팔골-산양 항로는 5만4000명(12% ↑)이 이용해 유일하게 증가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전남 동부지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7만6000명으로 지난해 19만1000명 보다 7.8% 감소했다. 항로별로는 여수-제주, 녹동-제주, 녹동-거문, 손죽-광도 항로는 여객이 증가했다. 하지만 신기-여천, 돌산-오동도, 여수-거문, 녹동-동송 항로 등은 이용객이 줄어 들었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동안 130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섬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햇볕이 따가운데다 해수욕장 수온마저 올라 피서객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했다는 분석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이 기간동안 여객선 2척을 추가로 투입했고, 해상 날씨도 좋아 여객선 운항횟수도 248회로 늘렸는데도 이용객 수는 줄었다"며 "이 기간내내 이어진 폭염이 섬여행을 가로막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추진을”

광주전남연구원, 4단계 로드맵으로 객관·신뢰성 확보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봉진 책임연구원은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 추진 방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광주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정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범위 및 대상을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용선 광주시장은 주요공약에서 광주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광주고용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고용영향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 및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고용영향평가의 도입 및 추진 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사항 검토 ▲2019년 상반기 광주고용영향평가 전담기구 구축, 광주고용영향평가협의회 등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구축 ▲2019년 정책사업 및 예산사업 등 대상사업 및 평가방법, 평가모델의 구축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광주고용영향평가 도입되면 예산 투입 및 정책 효율성의 제고와 고용친화적인 정책 개선으로 모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용선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린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각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정, 김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준희 세종시장.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공동건의문’ 채택

광주·전남 등 8개 시도

광주시를 비롯한 강원·충청·호남의 8개 시·도는 1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선 광주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이준희 세종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는 다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해 공동건의문에 사전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동참했다. 이날 8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국가균형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교류 등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 ▲강호축 8개 시·도의 공동 노력과 성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강호축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올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시도지사들은 “강호축 개발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앞으로도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광주·전남 시·도의회 촉구

최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연기 및 축소 움직임과 관련,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14일 “시·도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양 시·도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전남의 비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공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될 에너지밸리의 거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육성의 요람”이라며 “단순히 공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포석이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의회는 “법정부처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뿐 아니라, 지역인재육성과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 범 시·도민 추진 기구를 설치해 정부와 한전, 양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사장 누가 될까

기업인·대학교수 등 6명 지원

공석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모두 6명이 지원했다. 1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제7대 사장 공개모집 서류 접수결과 출신 분야별로 기업인이 3명, 전직 공무원과 의원, 대학교수 각 1명씩이 지원했다.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7일 서류심사에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다음 주 면접을 거쳐 복수 후보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추천한다. 이후 선정된 최종 후보자는 도의회 청

문회를 거쳐 사장에 임명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 간이다. 전남 유일의 지방 공기업인 개발공사는 남의 신도시나 여수 경도 관광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지문 전 사장 임기가 끝난 지난 1월부터 사장 공백 상태였다. 민선 7기 들어 첫 전남도 유관기관장 인선인 만큼 정상·보은 인사 여부 등 김지사의 인사시스템이 평가받을 계기로도 주목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천일염 우수성 알린다

1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소금박람회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18 소금박람회(Natural Sea Salt Fair 2018)'가 16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금,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 해양수산부, 신안군,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천일염세계화포럼이 후원한다. 박람회장에는 천일염 주요 생산지인 신안군과 영광군의 홍보관이 들어서며, 천일염 품질검사와 관리, 천일염 이력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게

된다. 또 특별관에서는 국산 천일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천일염 홍보관 ▲천일염 미래관 ▲천일염 선물세트관 ▲천일염 복합관 4개로 구성됐다. 천일염 복합관은 ▲소금동굴 ▲소금힐링 ▲소금카페 ▲소금뷰티 ▲소금다터 ▲소금생활 6개 테마로 운영된다. 박람회 첫날인 16일에는 '명품-건강 소금! 갯벌 천일염'을 주제로 (사)천일염세계화포럼의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천일염의 의학적 효능과 중요성, 고품질 천일염 생산 유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